

대한무도학회지, 2014, 제16권, 제1호, pp. 1-13  
The Journal of Korean Alliance of Martial Arts  
2014, Vol. 16, No. 1, pp. 1-13

## 택견(태견) 단체의 품밧기 동선과 용어에 관한 연구

김영만(숭실대학교) · 김창우(용인대학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택견 단체의 품밧기 동선과 용어에 관한 비교 연구를 위하여 각종 문헌고찰과 질적 사례연구인 인터뷰와 영상을 토대로 실시하였다. 그 목적은 택견 품밧기의 원형 복원에 일조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밧기의 동선은  $\text{—}$ ,  $\nabla$ ,  $\triangle$ ,  $\diamond$ ,  $\square$ ,  $\text{之}$ ,  $\square$ 의 동선을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품밧기의 동선에서 결련택견협회, 대한택견연맹, 한국택견협회는 시작 전에 서는 자세로 왼품( $\text{—}$ )을 사용하고, 현암위대태견보존연구회는 굽슬르기 등의 일자 동선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택견연맹은 빗밧기( $\nabla$ )를 역삼각형 동선으로 대표적인 품밧기로 사용하고, 타 단체는 기본 품밧기( $\triangle$ )를 삼각형 동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 품길게밧기( $\diamond$ )의 마름모꼴, 갈지자 밧기( $\square$ ,  $\text{之}$ )를 사각형 또는 갈지자 동선, 사면들어가기( $\triangle$ ) 등은 오각형 모양의 동선, 째밧기( $\square$ ) 등은 등변사다리꼴의 동선을 사용하고 있다. 그중에서 삼각형 동선이 가장 안정적이고 무예의 통상적인 보법이다. 둘째, 품밧기 용어는 송덕기 택견의 용어로 환원되어야 한다. 여러 형태의 품밧기의 용어는 모두 밧기에 포함되는 하나의 걸음걸이(보법)다. 차후 '품밧기'라는 구체적 의미의 용어보다 '밧기'라는 포괄적인 의미의 용어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굽실'은 송덕기가 구술한 '굽슬르기'로, 능청은 '허리재기'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 각종 송덕기의 영상과 사진 그리고 구술 등을 모티브로 삼아 재해석의 토대를 마련하고, 동작과 용어는 원래의 모습으로 재정리하여야 한다.

주제어 : 택견, 태견, 품밧기, 무예

“이 논문은 2013년도 대한무도학회 추계학술세미나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내용임.”

\* taekkyon151@empal.com

## 1. 서론

현암 송덕기는 조선말기(1893년 1월 19일생)에 출생하여 한국의 격변기를 마지막 택견인으로 살면서 후대인들에게 귀감이 되었다(김이수, 허일웅, 2002).

1982년 오장환의 문화재 신청과정에서 1970년대 송덕기로부터 택견을 전수받은 신한승(申漢承, 1928~1987)의 택견 학습체계가 제출되었다. 신한승은 무형문화재의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 1970~1980년대 유행하던 타 무예의 수련체계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으로 송덕기 택견과는 다소 상이한 형태의 학습체계로 구성되었다(박범남, 1999; 박영길, 안정덕, 2008; 이용복, 2005). 당시 '서구문화의 영향과 사회적 흐름'은 신청 분위기에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였기에 이는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했다.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 삼국시대에 젊은이들이 익혔던 덕견이라는 무술이 기술되어 있으며, 조선 1836년경의 그림으로 추정되는 화가 혜산 유숙의 대쾌도(大快圖)에 택견의 그림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명칭이나 형태로 짐작할 뿐이지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택견은 글로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작으로 전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여원, 1984).

조선의 마지막 택견인 송덕기로부터 전수된 택견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결련택견협회(도기현), 대한택견연맹(이용복), 한국택견협회(정경화, 박만엽) 등 3단체가 있다. 그러나 이 3단체 간에는 서로 상이한 수련체계를 수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형 시비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계보가 분명한 한 스승으로부터 전수된 택견이 불과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각기 단체마다 품밧기 원리 및 신조어를 포함

한 표현용어에 있어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직도 택견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전수되어 왔던 몸짓들이 여기저기에 고스란히 존재한다. 더 이상 변형고착이 심화되기 전에 퍼즐을 맞추듯 조각들을 모아 제대로 된 택견의 원형을 되살려야 한다.

택견이 생활체육 종목이 된 것은 과거 경기 형태로 전래된 민속경기가 큰 틀의 변화 없이 현대 스포츠로 부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문화재로서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 출발했던 상황에서 자력으로 생활문화로 발전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택견의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사회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이러한 분위기를 토대로 이론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택견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각적인 관점에서 계승하고 나아가 전통의 지혜와 정신이 현대적 가치로 거듭나기 위한 재창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택견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사명이자 책무로서 택견 원형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택견 원형을 토대로 재창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그 순서이다.

앞서 언급한 3단체 외에 주목할 만한 인물과 단체로 송덕기로부터 1969년 늦가을부터 1985년 가을까지 대략 16년간 가장 오랜 기간 택견 전수를 받고,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현암위대태견보존연구회'를 설립, 지도하고 있는 고용우(1952년생)가 있다. 고용우 인터뷰(2013.10.10, 미국 로스앤젤레스 커피숍)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할아버지께 고등학교 때 태견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언젠가 일이 있어 운동하러 못가면 할아버지께서 집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없으면 서00 집에 찾아가서는 '용우' 있다고 물어보기

도 했어요. 할아버지와 손을 잡고 다니기도 하고, 아마 83년부터 2년간 이준서 씨와 할아버지께 태권을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옛날에 태권을 배우면서 순서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내가 기록을 다 해놓은 사람인데, 내가 다해보고, 생각을 무지하게 해본 사람인데,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만 그대로 원본을 뽑아 놓아도 거의 같은 모습이 나와요.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고용우는 송덕기로부터 고등학교 시절부터 태권을 배웠고, 당시에 사사한 기록들을 꼼꼼히 노트에 적어 아직도 지니고 있으며 지금도 그 자료를 참고로 지도하고 있다. 고용우와 송덕기는 할아버지와 손자 처럼 가깝게 지냈으며, 함께 손을 잡고 다니는 사진이 남아 있다. 고용우는 가장 원형에 근접된 송덕기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우는 김정윤(2002)의 ‘태권’을 책으로 남길 수 있도록 송덕기를 김정윤에게 소개를 해주는 역할을 했다. 또한 송덕기가 “태권을 가장 마음에 들게 한다”고 하였다.

적어도 이러한 점은 송덕기태권의 원형 복원에 있어서 준거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상 고용우와의 인터뷰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우와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1984년 KBS에서 방영된 송덕기의 진술과 동작을 담은 문화강좌 ‘선조들의 수련세계’에 관한 VTR과 1985년 한국전통태권연구회에서 주관한 제1회 태권경기에서의 송덕기 태권시범 VTR에 대한 재분석결과의 내용도 본 연구에 포함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3단체의 품밧기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현재 로스앤젤레스에 활동 중인 현암위대태권보존회의 품밧기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

이다. 태권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현존하고 있으며 송덕기로부터 가장 오랫동안 직접 태권을 사사하였을 뿐 아니라 태권 수련 이전에 다른 무술의 영향이 거의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태권인의 증언을 통한 연구는 가장 신빙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권단체의 품밧기 동선과 용어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각종 문헌고찰과 경험을 토대로 하는 질적 사례연구인 인터뷰와 영상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하여 고용우로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2013년 9월 11일과 10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내러티브 면접법을 실시하여 귀납적 범주분석을 통해서 범주화하였다. 범주화된 자료와 3단체와의 비교연구는 송덕기라는 한 줄기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에서 검토가능하다.

언급된 품밧기 동선과 용어와 관련된 일련의 탐색과정들은 태권 품밧기의 원형 복원에 일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II. 품밧기 동선의 원리 비교

태권의 가장 근본이자 핵심원리인 품밧기에 대해 한결같이 송덕기는 “품밧기는 태권의 전부다”(고용우 인터뷰, 2013.10.10; 도기현, 2007; 이용복, 1997)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송덕기가 최소 1년 이상 품밧기를 수련시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품밧기는 품(品)자 모양으로 지면을 밟는 기술로 하나의 보법, 즉 걸음걸이다. 품이란 태권의 기본자세로 차렷 자세에서 오른발(왼발)을 어깨너비로 벌린 상태를 원품(인승)이라 한다. 이 상태에서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가며 품자 모양으로 앞, 뒤, 좌우에 발을 내딛는 동작이

택견(태견) 단체의 품밧기 동선과 용어에 관한 연구

품밧기이다. 현암위대태견보존연구회에서는 품밧기를 ‘밧기’의 한 기술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3단체에서 ‘품밧기’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편의상 ‘품밧기’를 주요 카테고리로 잡았다. 택견 단체별 품밧기를 비교해보면 <표 1>과 같다.

품밧기에서 동선의 원리는 상대와의 겨루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용해(1964)는 “밭을 品字로 놓는다는 약속이 있으며...”라고 삼각형 동선인 품자(品字)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종관(1995: 27, 33-36, 126)의 품밧기에 관한 동선은 품(品, 一), 선품(先品, △), 품밧기(△), 갈지자 밧쓰기(之)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 가장 근본이 되는 자세를 「인승」

이라고 하였고, 「八」자 형태의 서기로 기록하고 있는데, “각종 기법을 이 자세에서만 통

용되도록 되어 있다”라고 기술했다. 그리고 선품은 오른 선품과 왼 선품으로 구분했는데 “이는 편의상 구분한 것이다”라고 했으며, 밧의 간격은 한 족장이 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품밧기는 “선품으로 좌우로 내딛는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택견의 전진 또는 후퇴 보법의 전부인 셈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갈지자(之) 밧쓰기를 품밧기의 한 종류로 분류하지 않고 밧기술 사용을 위한 밧쓰기로 분류했다. 품밧기는 겨루기에서 공방을 위한 보법인데, 박종관은 품밧기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전진과 후퇴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승에서 기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생각하고 있다. 이는 밧기의 다양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표 1> 택견(태견) 단체별 품밧기 비교표

순번	결련택견협회		대한택견연맹		한국택견협회		현암위대태견보존연구회	
	품밧기	동선	품밧기	동선	품밧기	동선	밧기(품밧기)	동선
1	원품(인승)	一	원품	一	원품	一	.	一
2	선품(좌품, 우품)	△	좌품, 우품	▽	좌품, 우품	△	좌품, 우품	△
3	품좌우밧기	一	.	.	.	.	굽슬르기(상하, 좌우)	一
4	품앞뒤밧기	△	.	.	.	.	굽슬르기(앞뒤)	△
5	품 기본밧기	△	빗밧기	▽	품내밧기	△	기본 품밧기	△
6	품 헛밧기	△	길게밧기	◇	품길게 밧기	◇	갈지자(之) 밧기	□
7	품 접어밧기	△	눌러밧기	▽	제밧기	▭	뒷품밧기	⊕
8	품 빼며밧기	▭	제품밧기	▽	.	.	반보찾은걸음	△
9	품 옆제밧기	▭	.	.	.	.	사면 들어가기	⊕
10	품흔들며 밧기	一	.	.	.	.	.	.
11	갈지자 밧기	之	.	.	.	.	.	.

## 1. 결련택견협회

도기현(2007: 109, 131, 121, 125-127, 129, 132-133)은 결련택견협회의 품밟기를 다양하게 분류하여 원품(一: 이 자세를 송덕기는 ‘인승’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원품이라는 신한승의 용어를 사용), 선품(△), 품좌우밟기(一), 품앞뒤밟기(△), 품기본밟기(△), 품헛밟기(△), 품접어밟기(△), 품빼며밟기(□), 품옆째밟기(□), 품흔들며 밟기(一), 갈지자 밟기(之)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기현(2007: 64, 107)은 “택견의 기본 동작인 품밟기에서 보폭의 넓이를 가르칠 때에도 스승님께서도 자신의 한 족장(발의 길이)정도라고 하셨고...”, “품밟기는 품수 품(品)형으로 된 삼각형의 꼭짓점 부분을 3박자로 꼭꼭 밟는 것을 말하는데 일종의 걸음새이다”라고 했다.

도기현은 송덕기에게 한 족장으로 배웠는데, 상술한 품옆째밟기(어깨너비의 약 2배), 품앞째밟기(보폭의 2배에서 3배)로 기술을 구사하고 있다. 품밟기의 동선은 원품과 품좌우밟기(一)는 양발을 옆으로 일자의 동선으로 한 족장 벌려선 자세로 기본적으로 몸 풀기나 품밟기의 준비자세이다. 선품, 품앞뒤밟기, 품기본밟기, 품헛밟기, 품접어밟기, 품흔들며밟기(△)는 삼각형의 동선을 그리면서 밟는 가장 품밟기의 대표적인 밟기이다. 품빼며밟기, 품옆째밟기(□)는 등변사리꼴의 동선을 그리면서 밟는 자세로 보폭이 넓어지는 동작이다. 갈지자 밟기(之)는 지그재그 형태인 갈지자의 동선을 그리면서 나아가면서 밟길질을 하기 위한 밟기이다.

## 2. 대한택견연맹

대한택견연맹은 2000년도 이전까지 원품 상태에서 서서 익히는 형태로 기술을 구사하고,

품밟기는 역품자(∇)의 기본적인 형태를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 새로운 수련과정의 제정에서 품밟기는 원품(一), 좌품과 우품(∇), 빗밟기(∇), 길게밟기(◇), 눌러밟기(∇), 제품밟기(∇)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품밟기의 기본은 역품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용복(1997)은 품밟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택견은 매우 특별한 보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품밟기라고 한다. 품밟기는 택견의 핵심 구성요소인 대접의 규칙과 경기자 사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느저르기’ 기법과 필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서 강제성을 갖지는 않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택견 기법이 형성되므로 일종의 규칙처럼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품밟기는 고정된 형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이용복(1997: 56)은 품밟기의 기본에서 원품, 좌품, 우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품밟기는 ‘품수 품(品)자’와 같이 삼각형의 세 지점을 밟는다는 의미가 있다. 품밟기는 한쪽 발을 앞으로 내디디면서 왼발과 오른발에 겨꿈내기로 체중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두 발이 어깨너비 가량 나란히 벌려 선 것을 편의상 원품이라 한다(송덕기는 이 자세를 인성(인승?)이라고 말하였으나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왼발을 앞에 내디딘 자세를 좌품, 오른발을 앞에 내디딘 자세를 우품이라고 정해 둔다. 품밟기는 좌품과 우품을 번갈아 취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 경우에는 ‘품(品)’보다는 우리말 ‘품’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용복(2005: 34-35)은 “품밟기의 제한성과 대접의 규정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품밟기의 역품자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택견(태견) 단체의 품밧기 동선과 용어에 관한 연구

이용복은 코리언게임스와 1971년 국립영화제작소(국기 태권도, 1976), 국립영화제작소 필름에서 송덕기 동작의 분석과 박종관 정리(1984)의 『전통무술 택견』과 이용복(1990: 50)의 『한국무예 택견』 등에 송덕기의 품밧기가 역품자형이 있다고 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대한택견연맹의 기본을 역삼각형의 동선인 역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용복(1995: 66)은 “송덕기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배운 경우가 잦다. 그것은 송용이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가르쳤기 때문이다”고 했는데, 이러한 역삼각형의 보법은 좌우 측면 움직임의 동선은 유리하지만 전후 움직임의 동선은 부자연스러운 현상이 발생된다.

### 3. 한국택견협회

한국택견협회는 원품(一), 좌품과 우품(△), 원품에서 하는 품내밧기(△), 앞뒤로 길게 밧는 품길게 밧기(◇), 좌우 옆으로 움직이는 품째밧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본기술의 구사는 품밧기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으며 서서익히기와 나아가며 익히기기를 통해 기술을 실시하고 있다.

이승수(2011, 재인용)의 연구논문에서 신한승의 1975년, 1978년, 1981년의 품밧기의 변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1981년 현행 품밧기 과정이 정리되어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75년 택견 수련체계: 右品 품 바뀌서 바로 1. 左品 품 바꾸어서(右品), 2. 바로(原品) - 1978년 택견 수련체계 : 3. 품밧기(제자리) 내서 길게 째며, 5. 품밧기(두 손 옆으로 흔들기(자금다리)), 7. 활갯짓 바로 들며 품밧기(굳실, 굳실) - 1981년 택견 수련체계 : 1) 품밧기: ① 품내밧기(앞으로), ② 품길게밧기(앞뒤로 길게); ㄱ. 원

쪽으로 길게 밧기(左便), ㄴ. 오른쪽으로 길게 밧기(右便), ③ 품째밧기(옆으로), 2) 활갯짓: ⑦ 품밧기 활갯짓 같이 하기

택견이 1983년 6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 76호로 지정까지의 조사보고서와 조사의뢰서에서 품밧기에 관한 기록들은 다음과 같다. 예용해(1973)의 『택견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에서 “발을 品字로 놓는다는 約束이 있으며”라는 표현이 있으나 구체적인 품밧기 기술의 설명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신한승에 의해서 1981년 정리된 수련체계를 토대로 오장환(1981)은 『택견 무형문화재 지정 조사 의뢰서』로 정리하고, 그 내용을 임동권(1982)은 『택견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46호』에서 그대로 채택했는데, 그 품밧기에 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혼자 익히기 (1) 기본자세(품) ① 원품: 차렷 자세에서 오른쪽 옆으로 오른발을 어깨너비로 벌려선 몸가짐. ② 좌품: 원품에서 왼발을 앞으로 어깨너비로 내디딘 몸가짐. ③ 우품: 원품에서 오른발을 앞으로 어깨너비로 내디딘 몸가짐. (2) 서서 익히기 품밧기 ① 품내밧기(앞으로): 원품으로 서서 좌품, 우품으로 왼발 오른발을 교대로 바꾸어가며 제자리에서 계속 이어서 밧는 연습 ② 품길게 밧기(앞뒤로 길게): 왼쪽으로 길게밧기와 오른쪽으로 길게밧기를 교대로 나누어서 밧는다. ③ 품째밧기(옆으로): 원품에서 왼발을 앞으로 내밧았다, 왼발을 옆으로 째듯이 밧았다, 또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바꾸어가며 째듯이 이어서 계속 밧는 연습. \*품을 밧을 때 몸짓을 굽실거리는 연습, 허리를 뒤로 빼며 재기 연습하며, 배를 앞으로 내며 뱃심내기 연습도 같이한다. \* 품밧기 활갯짓 같이 하기: 품을 밧을 때 활갯짓을 같이 하기도 한다.

안희웅(1984: 150) 마당 「한국의 전통 무예의 재조명」 '택견의 유래와 술기'에서 송덕기와 신한승을 취재하면서 신한승이 정리한 수련과

정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품밟기

품이란 택견의 기본자세를 일컬음이다. 차렷 자세에서 오른발을 어깨너비로 벌리면 원품이 되고, 이 원품에서 왼발을 어깨너비만큼 양발 사이의 앞으로 품수 품(品)자가 되도록 내딛으면 좌품, 원품에서 오른발을 내딛으면 우품이 된다. 이때 원품에서 왼발 또는 오른발로 좌품, 우품을 밟는 연속 동작을 품밟기라 한다. ① 품내밟기, ② 품길게 밟기, ③ 품째밟기...

오장환(1981)의 내용을 오장환(1991: 58-59, 63, 65)의 『택견전수교본』에 수록했는데, 그 품밟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자세, 품: 택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몸가짐, (품)에는 원품, 좌품, 우품이 있다. 원품: 적의 공격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자세이며... 어깨너비로 벌려선 자세이다. 나) 품밟기: 품밟기는 택견의 3요소 중 으뜸이며 공방에 있어서 독특한 몸짓을 나타내는 발놀림... 1. 품내밟기: (한자의 품(品)字 모양임). 2. 품길게 밟기(앞뒤로 길게 밟기) 3. 품째밟기(옆으로 품째밟기): 한일字(-)모양...

한국택견협회의 품밟기는 신한승이 1981년 체계화시킨 품밟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정만영(2007)은 3단계의 품밟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택견의 가장 기본적인 보법에는 품(品) 밟기가 있다. 전수보고서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자리에서 하는 품내밟기, 앞뒤로 길게 밟는 품길게밟기, 옆으로 움직이는 품째밟기가 그것이다. 한국전통택견협회와 택견원형보존협회는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여 전수하지만 대한택견협회와 결련택견협회는 서로 상이한 보법으로 전수한다. 대한택견협회는 같은 품 내밟기라도 지정단체가 정삼각형보법 ‘:’으로 움직이는 반면에, 역삼각형보법 ‘:’으로 품을 밟는다. 이외에도 품길게밟기, 품

째밟기, 빗밟기, 품놀러밟기, 품재게밟기, 제품밟기가 있어 기존 세 가지 외에 네 가지를 더 첨가시킨 셈이다. 이는 송덕기가 즐겨 쓰던 품밟기라고 한다. 그러나 송덕기 택견을 배운 결련택견협회는 또 다른 품밟기를 쓰고 있다. 기본 밟기를 더욱 세분화시켜 품앞뒤밟기, 품좌우밟기, 품기분밟기, 품옆째밟기, 품앞째밟기, 품헛밟기, 품접어밟기, 품빼며밟기, 품흔들며밟기의 총 9가지로 나누어놓았다. 송덕기에게 같이 배웠지만, 대한택견협회와 결련택견협회의 품밟기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처럼 품밟기 하나만을 보더라도 각 전수단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술 용어 및 쓰임새의 통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현암위대태권보존연구회

현암위대태권보존연구회는 송덕기의 품밟기를 토대로 하여 좌품, 우품(△), 굽슬르기(一, △), 기본품밟기(△), 갈지자밟기(□), 뒷품밟기(△), 반보찾은걸음(△), 사면들어가기(△)로 구분되어 있다.

고용우 인터뷰(2013.10.10, 미국 로스앤젤레스 커피숍)에서 “택견 품밟기에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좌품과 우품은 편리상 품밟기를 하기 위해서 좌우로 품을 앞으로 내딛고 서는 자세예요. 굽슬르기는 밟기를 하기 위해서 제자리에서 몸이 출렁 출렁 울동을 타면서 체중의 이동을 연습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발을 한 족장을 벌리고 팔은 8모양으로...이게 좌우와 앞뒤 굽슬르기예요. 기본품밟기는 품(品)자 모양으로 밟는 거예요...갈지자 밟기나 걸음은 지그재그로 들어가는데 앞발과 뒤발은 항상 한 족장을 유지해서...뒷품밟기는 가볍게 중앙에 밟는 거예요. 반보 찾은걸음은 좌우 각 2회씩 짧게 앞뒤로 밟는 거예요. 사면들어가는 할아버지가 어느 날 사면으로 들어가야지 했어요. 할아버지는 공격할 때 기본 품밟기에서 갈지자로 들어가면서 상대를 공격해요...영등치기가 있어요(결련택견협회의 품접어밟기). 할아버지가 가끔 품밟으면서 하시곤 했어요.

## 택견(태견) 단체의 품밧기 동선과 용어에 관한 연구

엉덩치기로 품밧기의 박자를 바꿔줘요...

위의 인터뷰를 정리하면, 고용우는 좌품과 우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품밧기를 하기에 앞서 '굽슬르기'를 강조했다. 기본 품밧기는 품(品)자로 밧고, 갈지자 밧기나 걸음은 항상 한 족장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지그재그로 공방하는 방법이고, 반보 잦은걸음은 송덕기가 즐겨 사용한 밧기이다(KBS 문화강좌 '선조의 수련세계'와 1985년 제1회 택견 경기회 영상). 그리고 기본품밧기와 갈지자 밧기의 조화를 강조했다. 뒷품밧기는 발길질에 사용되는 밧기이며, 반보 잦은걸음이 송덕기가 가장 많이 사용하던 밧기로 1984년 선조의 수련세계와 부산구덕운동장대회 등의 영상기록물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 사면들어가는 측면으로 들어가는 밧기이다. 다른 형태로 가끔 품밧으면서 엉덩치기를 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이상 상술한 바를 환언하면, 한일字(一) 모양의 동선은 가장 기본적인 품(品, 一), 원품, 인승, 품좌우밧기, 굽슬르기(좌우)의 동작은 「八」자 모양으로 한 족장(어깨너비) 옆으로 벌린 자세이다. 박종관(1995)과 오장환(1991)은 '각종 기법을 적의 공격을 대응하는 자세'라고 했고, 한국택견협회는 원품에서 서서익히기를 수련하고 있다. 결련택견협회는 원품(인승)으로 몸 풀기를 하고 품흔들며 밧기는 하체차기를 피하는 동작, 품좌우밧기(어깨너비)로 "실제 견주기 상황에서는 상당한 고급기술이지만 허점이 많이 노출되고, 뒤로 넘어지기 쉬워 매우 부담이 가는 자세이다"(도기현, 2007: 131)라고 했다. 이러한 자세를 유도에서는 자연체라고 하는데, 이 자세는 유도에서는 공방이 가장 좋은 기본자세이다. 택견은 유술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타격기가 포함된다. 즉 주먹을 사용하여 경기나

전투를 하는 복싱, 무에타이 등 어떤 무술도 양발을 옆으로 벌려서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일자로 양옆으로 벌린 자세는 단순히 유술적 관점에서 접근한 생각이라 유추된다. 대한택견연맹은 몸 풀기와 기본동작을 시작하기 위해서 취하는 기본자세이다. 위대태견도 기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양발을 옆으로 벌려 선다.

품(品)자 모양인 삼각형(△)의 동선은 선품, 좌품, 우품은 모든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기본자세이다. 품앞뒤밧기는 체중을 앞뒤로 움직여 견주기의 기술로 사용하고 굽슬르기(앞뒤)는 체중을 앞뒤로 이동시키는 기술로, 기본 품밧기의 몸 쓰기를 위한 수련법이다. 품밧기, 품기본밧기, 품내밧기, 기본 품밧기는 택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자세로 가장 안정적인 자세이다. 전후좌우에서 공격을 받아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타 무예에서도 즐겨 사용하는 자세이다. 또한 결련택견협회의 품헛밧기, 품접어밧기, 품앞제밧기(품밧기 보폭의 2배~3배)와 위대태견의 반보 잦은걸음은 삼각형의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다.

등변사다리꼴(□)의 동선은 품빼며밧기, 품옆제밧기, 제밧기로, 좌우 옆으로 제듯이 밧는 동작으로 좌우로 크게 이동시키면서 옆으로 흘러보낸 후 그 힘을 역이용하는 방법이다.

마름모꼴(◇)의 동선은 길게밧기와 품길게밧기로, 앞뒤로 길게 밧는 동작이다. 이 동작은 기본 품밧기에서 뒤로 내딛으면서 밧았다가 다시 앞에 내딛으면 길게 밧기가 되는데 앞뒤로 공격과 방어에 용이한 기술이다. 역삼각형(▽)의 동선은 빗밧기로, 대한택견연맹에서 역품을 기본으로 수련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 품밧기에서 갈지자 밧기로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역품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화되면서 빗어진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타 단

체에서는 정품을 기본으로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역품은 좌우로 들어가면서 공격하기에 유리한 각도이다. 이는 기존의 사전에서 택건을 발로차서 넘어뜨리는 경기라는 표현을 이용하여 단순히 발차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전진과 후퇴가 필요한 주먹질이 누락된 경기 규칙에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택건은 《한불즈전》, 《한영즈전》, 《한국천주교회사》 등 조선 말 외국인들의 기록에서 주먹과 발, 심지어 무릎까지 사용하여 경기를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영만, 심성섭(2014)의 '조선 말 외국인의 기록을 통해본 택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고용우는 인터뷰(2013.9.11. 미국 로스앤젤레스 커피숍)에서 “태권은 무예니까, 당연히 손발과 몸의 조화로 치고 차고 넘기고 조르고 꺾는 기술들이 있어요”라고 했다. 고용우의 수련과정에서는 종합격투기의 형태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

사각형(□)의 동선은 위대태권의 갈지자 밟기로, 양발이 원품상태에서 좌우 갈지자 걸으면 자연스럽게 사각형의 동선이 그려진다. 주로 송덕기의 영상들에서 갈지자 밟기를 많이 볼 수 있다. 주로 공격 시에 갈지자로 나가면서 공격하는 동작이다. 결련택견협회의 갈지자(之) 밟기와 박종관의 갈지자 발쓰기는 비슷한 형태이다. 오각형(△)의 동선은 위대태권의 뒷품밟기와 사면들어가기이다. 이 동작은 상대를 순간적으로 동선을 바꾸면서 측면으로 공격하는 기술이다. 밟기의 동선의 길이는 대체적으로 한 족장을 위주로 하고 있다.

발의 각도는 힘의 방향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몸과 손발이 떨어질수록 힘의 강도는 약해진다. 품밟기에서 삼각지점에 발을 모았

다가 이동하는 것은 빠른 움직임과 강한 파워를 발현시키기 위해서이다. 태권도가 품새(形) 위주의 수련에서 경기화 되면서 발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빠른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겨루기에서 정확한 타이밍과 빠른 스피드는 경기에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다. 택건의 기본 품자 모양의 자세는 복싱, 무에타이, 검도, 합기도 등과 같이 기본자세에서 앞에 한 발을 내딛고 서있다. 이는 전진과 후퇴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기본 품밟기에서 갈지자 밟기로 이어진다.

각 단체마다의 품밟기의 형태는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족장 넓이의 품(品)자모양인 삼각형 동선 형태로 밟는다는 공통본모가 있다.

### III. 품밟기 용어의 비교

품밟기의 용어는 예용해(1964)의 조사부터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일관성 있게 품(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승에 의해서 새롭게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품밟기의 세부화와 명칭의 신조어가 등장하고 대한택견연맹과 결련택견협회도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용어가 정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용우 인터뷰(2013.10.10, 미국 로스앤젤레스 커피숍)에서 “택건의 품밟기에는 어떤 용어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할아버지는 품밟기에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걸 기본적으로 품밟기라고 하지 그것을 일일이 명칭을 붙이지 않았어요. 처음에 찾아갔을 때 품(品)자를 마당에 그려놓고 ‘밟아라’고 했어요. 품밟기는 걸음걸이와 같아요. 밟기가 있는데 그 안에 품밟기가 포함돼요. 할아버지가 품자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택견(태견) 단체의 품밧기 동선과 용어에 관한 연구

어떨 때는 앞으로가다가 옆으로도 가고, 전체가 밧기죠. 할아버지는 어느 날 사면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사면들어가기를 보여주셨어요. 어디에도 사면이라고 쓰지 않아요. 그리고 갈지자로 밧아야지라고 하시면서 공격할 때 갈지자로 들어가면서 공격해야지라고 했어요. 뒷 품밧기는 할아버지가 뒷뉘시걸이나 도끼발로 공격할 때 하셨고, 반보 잣은걸음은 발을 반보씩 자근자근 잘게 밧아야지 하시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때 췌밧기라고 들어보지 못했어요. 상대 다리를 벌리면서 췌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명칭을 물어봐요.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갑자기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같아요. 그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택견 명칭을 자의적으로 만들면 안돼요.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왜 만들어요. 명칭이 중요해요. 한국에 있는 단체들이 막 만드는데 신중해야 돼요. 오리지날(Original)로 썼던 명칭이 있어요.

현재 통용되고 있는 품밧기와 관련된 택견 용어에 있어 굵실굵실은 “벌레 따위가 느리게 조금씩 자꾸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여럿이 구불구불하게 물결을 이루며 자꾸 부드럽고 느리게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Daum 국어사전, 2013)이라는 표현처럼 크기가 작은 형태가 움직이는 것이다. 굵실을 통해서 “무릎의 굴신(屈身)운동을 통한 하체와 오금의 탄력 증대가 이루어진다”(도기현, 2007: 111)고 했는데, 송덕기의 구술에 의하면 ‘굵슬르기는 몸이 파도치듯이 출렁출렁(액체 따위가 이리저리 자꾸 크고 거칠게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Daum 국어사전, 2013)이라 하듯이 살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는 무릎의 오금질보다 큰 살의 움직임이라는 표현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능청능청은 “가는 막대기나 줄 따위가 탄력 있게 자꾸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Daum 국어사전, 2013)이므로 대신에 허리재기로 바뀌어져야한다. 품기본밧기와 기본품밧기, 품밧기는 같은 용어이다. 송덕기는 품밧기에 대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밧기를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다. 밧기는 전체적인 발의 움직임, 걸음새 또는 보법을 의미하고 그중 가장 많이 통용되는 품밧기가 주가 되는 것이다. 고용우가 진술했듯이 품밧기에서 갈지자 밧기(걸음)는 품(品)자에서 지그재그로 이동하는 보법이고 뒷품밧기, 반보 잣은걸음, 사면들어가기는 하나의 밧기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밧기’이다. ‘밧기’의 모습은 우리민족의 중요한 몸놀림 중의 하나로써”(도기현, 2007: 111)라고 했듯이 기존의 ‘품밧기’라는 국한된 사고에서 ‘밧기’에 품밧기도 하나의 기술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품밧기 용어를 복원하면 <표2>와 같다.

<표 2> 품밧기 용어의 비교

현 행	복 원	비 고
굵실굵실	굵슬르기	3단체→위대태견
능청능청	허리재기	3단체→위대태견
품밧기	밧기	3단체→위대태견

김정행, 김상철, 김창룡 (1977)은 “택견은 송덕기 한사람에 의해 명맥이 이어져 오던 것이어서 그의 문하생들이 받아들이고 이를 다시 전수라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견해와 변형의 여지가 많았다. 이는 다수의 민중 문화였던 택견이 소수의 개개인에 의하여 다시금 대중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고 하였다. 문화재 전문위원인 예용해(1973)는 [택견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02호]에서 “고유한 전승기법의 변형은 그것이 비록 발전의 결과라 할지라도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지정의 관례로 미루어져 있어서 난점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가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문화재의 원형 변형은 근본적으로 유산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됨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듯이 이제라도 택견의 원형

을 올바르게 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존하고 있는 각종 송덕기의 영상과 사진 그리고 구술을 토대로 해서 원래의 명칭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택견의 진정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송덕기의 원형 몸짓으로 환원되었을 때 단체들과 개인의 기득권과 관계없이 올바른 수련체계가 정립될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고 과학적인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택견의 보급과 세계화로 미래에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택견이 될 것이다.

## VI. 결 론

본 연구는 택견 단체의 품밧기 원리에 관한 비교 연구를 위하여 각종 문헌고찰과 질적 사례연구인 인터뷰와 영상을 토대로 실시하였다. 그 목적은 택견 품밧기의 원형 복원에 일조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밧기의 동선은 一, ▽, △, ◇, □, 之, □의 동선을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품밧기의 동선에서 한국의 3단체는 시작 전에 서는 자세를 원품(一)을 사용하고, 현암위대태권보존연구회는 굽슬르기 등의 일자 동선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택견연맹은 빗밧기(▽)을 역삼각형 동선으로 대표적인 품밧기로 사용하고, 타 단체는 기본 품밧기(△)을 삼각형 동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 품길게밧기(◇)의 마름모꼴, 갈지자 밧기(□, 之)를 사각형 또는 갈지자 동선, 사면들어가기(△) 등은 오각형 모양의 동선, 제밧기(□) 등은 등변사다리꼴의 동선을 사용하고 있다. 삼각형 동선이 가장 안정적이고 무예의 통상적인 보법이다.

둘째, 품밧기 용어는 송덕기가 사용하던 원

래 택견의 용어로 환원되어야 한다. 품밧기의 용어는 밧기에 포함되는 하나의 걸음걸이다. 차후 ‘품밧기’라는 구체적 의미의 용어보다 ‘밧기’라는 포괄적인 의미의 용어로 전환이 필요하다. ‘굽실’은 송덕기가 구술한 ‘굽슬르기’로, 능청은 허리재기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 각종 송덕기의 영상과 사진 그리고 구술 등을 토대로 원래의 동작과 용어를 되찾아야 한다.

예용해(1973: 383)는 “固有한 伝承技法의 変型은 그것이 비록 발전의 結果라 할지라도 文化財保護法과 無形文化財 指定의 慣例로 미루고 指定에 있어서 難点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듯이, 택견이 중요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형유산인 만큼 이제라도 택견의 원형을 복원하여 올바르게 전승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영만, 심성섭(2014). 조선 말 외국인의 기록을 통해본 택견. **한국체육과학회지**. 23(1), p 15-27.
- 김이수, 허일웅(2002). 玄庵 宋德基와 택견에 대한 研究. **대한무도학회지**. 4(1), p 189-201.
- 김정윤(2002). **태권**. 서울: 밝터.
- 김정행, 김상철, 김창룡(1977). **무도론**. 서울: 도서출판 대한미디어.
- 도기현(2007). **우리무예 택견**. 서울: 동재.
- 박범남(1999). 송덕기 택견의 수련체계 및 특성. **대한무도학회**. 99 **국제무도학술세미나**, p 92-98.
- 박영길, 안정덕(2008). 신한승택견의 학습체계.

택견(태견) 단체의 품밧기 동선과 용어에 관한 연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8), p 235-243.
- 박종관(1995). **전통무술 택견**. 서울: 서림문화사.
- 안희웅(1984). 택견의 유래와 술기, 한국 전통 무예의 재조명. **미당 7월호**. 35, p 144-153.
- 여원(1984). 활갯짓 속에 숨은 한국 전통 태견의 제1인자 신한승. **여원 5월호**.
- 예용해(1964). 續人間文化財. 한국일보, 5월 16일, 7면.
- 예용해(1973).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102호: 택견. **문화재관리국**. P 375-412.
- 오장환(1981). 무형문화재지정 조사 의뢰서 택견.
- 오장환(1991). **택견전수교본**. 서울: 영언문화사.
- 이승수(2011). 해방 이후 한국 전통무예의 근대화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16(2), p 29-46.
- 이용복(1995). **택견연구**. 서울: 학민사.
- 이용복(1997). **택견**. 서울: 대원사.
- 임동권(1982).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146호: 택견. **문화재관리국**. p 73-101.
- 정만영(2007). 택견 전수단체의 현황과 기예의 비교. **한국택견학회. 무예연구(창간호)**, 1(1), P 71-101.
- 한국전통택견연구회(1985). 제1회 택견경기회. VTR.
- Daum 국어사전(2013, 10월20일).
- KBS(1984). 文化강좌 '선조의 수련세계'. KBS VTR.

ABSTRACT

Footwork Patterns and Terms used by Taekkyon Associations in South Korea

Kim, Yeong-man(Soong sil Univ.) · Kim, Chang-Woo(Yong in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tore the original form of taekkyon's pumbalpgi by conducting comparative research on the principles of Pumbalpgi used by different taekkyon associations. The methods of this study included literature review and a qualitative case study incorporating interview and filmed material.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umbalpgi patterns have the following shapes:  $\dashv$ ,  $\nabla$ ,  $\triangle$ ,  $\diamond$ ,  $\square$ ,  $\text{ㄷ}$ , and  $\text{ㄹ}$ . Different taekkyon associations use different such patterns. Before starting practice, the Kyulyun Taekyun Association, Korea Taekkyon Federation, and Korea Taekgyeon Association all begin by standing in the Weonpum(一) position, while the Hyunam Widae Taekkyeon Preservation Organization uses linear movement with techniques such as gumseulleugi(weight Shifting). The Korea Taekkyon Federation uses a  $\nabla$  shape, an inverted triangle, as its representative stepping pattern. Other associations use  $\triangle$ , a basic triangle shape for footwork. Still others utilize stepping patterns such as  $\diamond$ ,  $\square$ ,  $\text{ㄷ}$ ,  $\triangle$ , and  $\text{ㄹ}$ . The triangle shape is the most common and balanced way of stepping. Second, terms used by Song Deok-gi should be restored to common usage. As used by Song, the term "pumbalpgi" means a kind of stepping pattern within "balpgi"(footwor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term pumbalpgi, which has a specific meaning, to balpgi, which has an inclusive meaning. The term "gumshil" should be changed to "gumseulleugi", a word used by Song Deok-gi, whose taekkyon was officially designated as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in South Korea. Similarly, the term "neung-cheong" has to be changed to "heori jaegi"(waist stretch).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in order to restore the movements and special terms of original taekkyon, based on analysis of various filmed records, photos, and statements of Song Deok-gi.

Key Words : taekkyon, martial arts, pumbalpgi,

논문투고일 : 2014. 02. 28

논문심사일 : 2014. 03. 25

게재확정일 : 2014. 04. 25